

II. '98 현대그룹 폐기물 워크샵

본 연구원은 현대그룹 폐기물 자체 처리 확대를 위한 폐기물 워크샵을 1998년 3월 16일 본 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, 현대중공업, 현대자동차 등 총 22개사 24명이 참석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폐기물 자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가 되었음. 본 연구원은 현대그룹의 녹색화를 위한 자체 워크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며, 제 1회는 작년 동기간 “환경경영과 기업”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음

1. 워크샵 주제

- 1) 폐기물 용어 표준화
- 2) 폐기물 관련 적발 사례 소개 및 재발 방지 대책
- 3) 대기업 폐기물 자체처리확대 방안
 - 울산권역 : 현대중공업 소각로 및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의 효율성 제고
 - 서산권역 :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소각로 공동 활용 방안
 - 서울·경인권역 : 폐기물 공동 매립지 조성 타당성
- 4) 대정부 건의 사항

2. 결 과

- 1) 폐기물 용어 표준화
 - 계열사별로 120여가지의 폐기물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환경부 공식 집계 용어로 통일하여 25~30개 항목으로 표준화
 - ex) · 페프라스틱류 : 폐합성수지, 플라스틱,
 - 폐고무류 : 폐타이어, 폐합성고무
 - 금속·초자류 : 금속편류, 고철, 철류
- 2) 폐기물 관련 적발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

- 폐기물 보관 부적정에 의한 적발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, 적절한 보관장 설치 및 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
 - ex) · 폐유고상 보관장소에 폐밧테리 보관 : 분리 보관 철처
 - 불량엔진 야적장에서 부동액 누출 : 옥내 보관장 설치
 - 기존 폐기물 매립장에 아파트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처리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: 현장내 파쇄기 및 선별기를 설치,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
-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미숙에 의한 적발
 - 폐기물 위탁처리기간 변경 미이행 : 처리업체 관리 강화(계약시 면허 기간 확인 필)

3) 대기업 폐기물 자체처리 확대 방안

- 울산권역 : 현대중공업 소각로의 즉각적인 활용 확대는 운반비의 자체 부담, 고비용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으며, 울산환경개발의 경우 향후 매립물 중심으로 점차 처리량을 확대할 계획임
- 서산권역 : 현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소각로가 처리물량 부족으로 사실상의 운전 중단 상태에 있으므로 인근 계열사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으며, 환경연구원이 중계하여 관련사간의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
- 경인권역 : 정책적으로 매립지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매립물량 축소가 보다 바람직

4) 대정부 건의 사항

- 자체처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도차원의 행정으로 전환 필요
- 폐기물 매립지 조성은 최초 사업 단계에서부터 민·관·기업 합동기구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
- 동일한 소각로를 이용하여 여러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 기준도 혼합 운반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필요
- 허가권과 지도단속권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
- 무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복토가 필요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

3. 평가

- 1) 계열사 간 폐기물 처리 협조 체제 구축의 계기 조성
- 2) 권역별 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
- 3) 폐기물 관련 환경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의식 고조
- 4)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의 정부-기업 협조의 중요성 인식
- 5) 효율적 환경경영을 위한 전문가 지식 공유 및 토론의 중요성 인식